

인지되는 경우에, 석면폭로력의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초자화플라크에서는 비만자의 脂肪影과의 감별도 중요하다. 脂肪의 투영은 보통 좌우對象性이며, 때때로 鋸齒狀을 나타낸다.

'석면폭로의 지표'로 되어 있는 흉막플라크와 흉막중피종(Mesothelioma)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여러 연구보고를 소개하면, McMillan과 Sheers가 영국해군조선소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적조사한 결과, 석면폭로자에게 흉막중피종 발생이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흉막플라크가 나타나는 자에게 특별히 발생율이 높다는 증거는 없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통상의 흉부 X선사진

에서 모든 흉막플라크를 검출하는 것은 곤란하다. (석면폐암 수술중, 수술전 X선상에는 아무런 흉막플라크의 소견이 없었던 예라도 흉막 한면에 백색의 단단한 플라크가 나타나는 수도 있다)

또, Fletcher를 비롯해서 Edge는 조선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흉막플라크(+)군의 폐암 발생율은, 마찬가지로 석면폭로를 받은 흉막플라크(-)군의 2배였다고 하였다. 또한 흉막플라크 자체는 무해한 흉막변화이나, Hillerdal에 따르면, 정형적인 흉막플라크 유소견자의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다보면 자각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기능저하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은 Subclinical parenchymal fibrosis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산업간호사업 전국대회

당협회는 2000년대 만인의 건강을 이룩하려는 세계적인 사회운동과 더불어 산업체에서의 일차보건의료를 향상시키고, 또 이의 효과적인 전달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노동부의 후원아래 지난 9.26 서울 서초구민회관에서 「근로자건강을 위한 산업간호사업 전국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산업간호사 500여명이 참가한 전국대회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조규상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정동우 노동부 차관의 치사,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한상태박사와 대한간호협회 박정호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밖에 산업의학회 이승한회장, 서울대 보건

대학원 정문식 대학원장, 홍종래 산업안전협회 부회장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였다.

한상태 박사는 격려사를 통해 산업보건간호사를 포함한 산업안전요원들은 가장 생산적인 인구인 근로자의 보건을 증진시키고 지켜야 하는 막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피력하고 앞으로 산업보건 실무의 핵심요소가 되어가는 산업간호가 하나의 보건전문분야로 인식되어져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사업이 이루어져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협회는 이날 동 전국대회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산업간호사들의 역할확립과 책임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 한국산업장에서의 일차보건사업을 위한 산업보건계획(대한산업보건협회 조규상회장)
- 산업간호사 훈련에 관한 WHO 계획과 전세계의 산업보건실태와 근로자 건강에 대한 WHO 계획(서태 WHO 산업보건 자문과 Dr. L. S. Wang)
- 한국산업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화중 교수)

을 주제로 현장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강연이 되었다.

금번 학술강연의 내용을 본지에 전문게재 하였다.

한국산업간호학회 창립

산업간호에 관한 연구, 교육 및 훈련, 학술교류 등 산업간호의 향상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산업간호학회가 9.26 산업간호사업 전국대회와 함께 창립총회를 가졌다.

간호학과와 지역산업간호사회가 주축이 되어 추진해온 동 학회는 산업간호의 학계와 사업장의 산업간호사를 회원으로 하며, 현재 약 35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하였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임원선출과 사업계획 심의가 있었으며, 동 학회의 초대회장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화중교수가 추대되었으며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김화중(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부회장 : 임옥순(인천 삼광유리 보건관리자)
- 감 사 : 박신애(경희대 간호학과 교수)
조운지(스위스그랜드호텔 보건관리자)

한편 동 학회는 창립총회와 함께 9.27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산업간호직무개발을 위한 연찬회를 갖는 등 힘찬 첫발을 내딛고 있다. 향후 한국산업간호 분야의 발전이 기대된다.

광업외 진폐발생실태 및 보호대책개발에 관한 연구 실시

협회는 광업이외의 진폐발생실태 및 보호대책

개발에 관한 연구를 노동부로 부터 용역을 받아 10.6~12.29까지 일반산업 진폐자 151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로 실시하고 있다.

연구사업은 최근 광업이외의 일반산업에서도 진폐근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노동부가 일반산업 진폐근로자들의 직력 및 진폐발생기전과 직력중 분진발생 작업장의 분진발생실태를 조사하여 진폐법의 적용 확대여부와 소요재원조성방안 마련에 목적을 두고있다.

건강진식 개정을 위한 회의개최

협회는 10.12~14에 충남 도고에서 건강진단서식개정을 위한 전문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강진단서식(일반검진 2종, 특수검진 15종)을 전면 재검토 하였다.

금번 개정내용은 그동안 많은 검진기관 및 실무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다 간결하고 기록관리에 편리토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특히 향후 전산관리에도 활용 될수 있도록 하였다.

동 검진서식에 대한 시안이 10월말경 마련되어 일선 검진기관에 의견을 다시 들은 뒤 확정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 '91. 1월부터 사용할 계획이다.

산업보건계 소식

- ☞ ...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산업보건학과 강준원 조교수가 새로 임명(9.1)되었다.
- ☞ 강준원 조교수는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UCLA에서 환경공학 박사 학위를,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에서 Postal Doctorship을 취득. 담당과목은 환경공학, 환경화학, 작업환경측정,수질화학, 위생공학이다.
- ☞ ... 순천향대학교 병원 남택승박사(종합건강진단센터 소장, 예방의학 교수)의 정년퇴임식이 8월 23일에 거행되었다.
- ☞ ... 전남의대 예방의학교실 송인현 교수(대한산업보건협회 초대 전남지부장 역임)의 정년퇴임식이 8월 24일 전남의대 명학회관에서 거행되었다.
- ☞ ... 제 2 회 아세아 태평양 산업 및 환경중독학 심포지움이 오는 92년 7월에 미주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